朝鮮日報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文植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電話本局 編輯局 營業局
定價 月極 壹百圓

民主存續에 不可缺한 個人의 神聖性 守護

土地改革法案優先審議하라

立議에 書翰 「힐더」代將

立議에 上程되어 있는 土地改革法案에 關하여 「힐더」 代將은 本會議에 書翰을 보내어 同法案을 優先的으로 審議하여 주기를 要望하였다.

書翰內容

蘇의 永久分割決意 朝鮮經濟를 窒息化

美陸軍省에서 將校에 指令

[워싱톤二十七日發UP朝通] 美陸軍省은 그 將校들에게 朝鮮을 永久的으로 二分시키려는 蘇聯의 決意는 朝鮮의 經濟를 窒息시키고 있다는 것을 …

朝鮮의 國聯加入在邇

劉中國代表, 歡迎會서 演說

朝鮮派遣UN委員中國代表 劉馭萬氏 歡迎會는 廿六日下午六時부터 國際外交研究所主催로 天香園에서 …

朝鮮은 非敵國임에도 不拘하고 過去三個年間 …

美國政策과 歐羅巴

(中) 高承濟

鐵과 金兩帳幕의 抗爭

合同에 意見一致

國議·民代協議續行

民生對策講究 韓民黨서 要請

빨칸 近東의 風雲漸動

東歐北希政府承認?

게리라軍新攻勢

蘇·이란關係緊張

大使館員을 本國에 輸送

對美軍事協定 十月一日부터 發效

蘇科學은 美의 後進

노-벨受賞者 「칼」氏談

一九四八年 日誌

九月

十月

銀丹 消化促進

人事消息

社告

朝鮮日報社白

●비오는 서울거리……

小寒에겨울비

稀世의異變!

保健上의注意等必要

二십六일밤열시부터 오기시작한비는 二十七일오후까지도계속하고있고 二十七일아침은 안개가자욱하야 지척을분별할수없었다 이런일이국사(國史)를펴보면 잇기는있었든모양으로 겨울에어름이없고 눈이없었다는기록이 여러곳에 씨워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예를들어보아도 신라본기에『奈勿王三十三年冬無氷』『實聖王二十年冬無雪』이라 써워잇고 고구려 본기에는『故國原王四年冬無雪』백제본기에는『肖古王四十六年十一月無氷』이라고 써워있어 그때의기후를 추측할수가있었다 그러나근세에와서는 동지가지나고 소한에들어가는이때에 비가온일은별로없다 이제로부터 六십四년전인 갑오년(甲午年)겨울이 더워다는것은 들은바이지만 동지지나 비가왔는지는알수없다 몇일전까지 사온(四溫)도없이 영하十五, 六度를 오르나리던혹한(酷寒)이별안간 돌변하야장마비처럼 고칠줄모로고내린다는것은 여하간기후상의한이변(異變)이라고아니할수없다

이에대해 중앙관상대에서는 다음과같이말한다

二十六일 오후九시三十五분부터 내린눈이내리든니 十시경비로변하야 二十七일오전十시까지 二十一『미리』나내리고 그러께계속중이다 그런데겨울동안에 이러케기후가 격변되면 농작물과인체의위생상에도 큰관계가있을것으로 죽보리같은것은 어러죽을 염려가없지않고사람에게는 유행병이 생길수도있는것이다 더욱이기관지(氣管支)에영향될바가 있을터임으로 특히주의하여야 할것이나지나치게미신적으로해석할필요는없다

積極節電하면

家庭에朝夕送電可能

비상전력위원회에서는 二十七일 절전을요망하는다음과같은요지의 담화를발표하였다

남조선국면이 절전에협력하지않기때문에 전지역에대한동시송전은사실상불가능한상태에있다 현재전력사용상태를보면 요리용 난로 전열등불필요한 곳에전력을사용하고있기때문에 전신 수도 철도 탄광작업등전력을 절대로필요로하는부문에 막대한타격을주고있다 그럼으로금후 이상과같은 불필요한부분에 전력을 남용치안는한 모든지역에대하여 시간송전을계속하게될것이며 가정용전광도 상오五시부터 八시까지 하오五시부터七시까지의송전을 확보할수있을것이다

配電을强化

安岩洞變電所建設工事竣功

경전에서는 지난三월이래 시내돈암동 안암동을중심한 동부지구일대의배전(配電)을강화코저 안암동 변전소(安岩洞變電所)건설공사를 착비하고 있었는데 전력문제가 중대화한이지음 공사의완료를보았음으로 二十六일오전열시 변전소구내에서엄숙히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변전소는 공사비만三천오백만원으로서 경전이보유한자재를 동원하야 건설될것인데 금후동부지구에 三천『볼트암페어』를 더배전하기로되여있어 계방면에 그야말로명랑하게 전기를보내게되였다고 한다

貨物自動車도麻痺

『다이야』不足으로六割이休眠

열차『다이야』는 석탄관계로 대부운전휴지로(擁)상태에 빠지고있어 여기화물취급은 마비(麻痺)되여 이때의 회피처는 육상(陸上)운수즉화물차수송에 있다할것인바 이화물차의동향을보면 경기도외에五백八十五대가 현재허가되여있어 거기이 六백여대가움지기여야할것인데 휘발유(揮發油)『다이야』등의 부족(不足)으로 四〇%인 一백五十여대밖에 움지기지못하는 현상이다 이라개책으로 기간장무부를통하야 생(生)고무 六천여돈이도로입하(入荷)는되였으나 이것마저정전(停電)기타부속품등의부족으로『다이야』생산이정지상태에있다한다

自由에질린自由

나만자는게解放인가

(八)

자유!자유! 자유라화 칠히존귀한명칭이요인능가 오颱풍앞칫고 동경하든 이상이다 자유에굶주렸우리겨레가 자유바람에부대대고 날뛰는것도 무리는아닐것이요 오히려진정한자유를위하여서는 싸워야하고 희생이라도 앙칠말어야할것은물론이다 그러나자유를획득하려면 먼저자유를알고이해하야할것이다 기때에 마음대로춤을뿜고 분부를함부로내던지고 삭림을날뛰하고 남을제맘대로 욕하고 능상하고 남원의권고를뿌리치고 춤추며마나는여인들의자유 그러한자유가아님은 무람할것없다 그허하며 노동날우리겨레를은 어자유아닌방종과부도덕을 자유의하나로알고제상사탑같이야 죽든말든육하든말 제마로계한이를위하고 저만살면 그것으로만족하고 그것을 자유로운 세상이란곳이칭한다 하지요즘세상은돈만있으면자유요 권리세면자유롭더많이 획득하는것도 사실이다 돈많았으면자유대로쓰고놀고 그무서운자기자유의자이 법망까지도 뚫고나갈수있고 권만있으면남의것을 함부로부시기도하고 남이제마음대로행일수요 정치에라이게까지라모한다 그러나구보담도 미구나하싶한것은 어면종그로친관념이다 부모나변장자의말을 자기의자유를 구속하는 의자실처럼알고 향하

고 새은소리 시대에 뒤떠러진 행동규범으로 아는것도 격정이 면니와 자기를가르키는 선생님을무고 아침에 인사하지않든이경와 담배피우는것을 자유로아는것이다 여기에어면학교의실례를 하나들기로한다 자난불중학생들이 선생님을 별명을 지어부르는 것들은 옛날이나지금이나 흔히있을일이지만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교실에드러오자 머리로플로없이교실이떠나가도록 대소곡소하는바람에 영문모르는선생이 『어엇』하고 교실을 둘러보고있는중에 어떤생도가 불숙이러나하는말이 『선생님 머리가왜? 그렇게 벗어지셨나까?』 우리들은 이제부터 선생님아호(雅號)를『대머리』라고 불치고 그럼게부르기로 결정했답니다 하하… 선생이 낯색을변하며 교실을 나갔다는 실례가있고보니 실상자유가다 관계

羅義士의親書

擧事前에本社로

고 라석주(羅錫疇)의사의 廿五주년기념일이되는오는 二十八일 김구(金九)씨외다수명사가 아침九시부터경운동천도교강당에모히여 라의사추도회를 엄숙히 거행하거니와 라의사가 거사직전에 당시 본사사장 신석우(申錫雨)씨에게 보낸 피봉은 친필서한의 전문원본을 독자에게 소개한다 이편지는 당시본사사장 지문치장(文致璋)씨가 지복사소장한것인데 한구절일는자료 하여금라의사의중요한 순국정신을 가히추모케한다

No.

朝鮮日報社 貴中 啓者 本人은 우리 二千萬民族에 生存權을 차자 自由와 幸福을 千秋萬代에 누리기 爲하여 義烈男兒가 犧牲的으로 團結한 義烈團의 一員으로서 倭敵에 官私設機關을 勿論하고 破壞하려고 今次 到京此바 最后 힘을 盡力하여 搾取機關인 東拓會社 殖産銀行에 善戰할 힘이 남으면 本町一·二·三·四町에까지 出頭하여 市街火戰을 하다가 自殺하기로 盟誓코 實行하려 하오니 此 照亮后 本人에 意志를 可及的 光報에다 紹介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本人이 自殺할야는 理由는 저 倭敵의 法律은 우리에게 正義를 줄여고 만들어 논 것이 안인데 不幸히 倭警에게 生捕되면 日本人에 戰鬪力은 다 빼앗긴 后에 訊問 審問이니 무엇이니 하여서 世界에 없는 野蠻的 惡刑을 줄 것이 明白하기로 不服하는 뜻으로 現場에서 自殺하기로 決心하였습니다 더 쓰지 않고서 그만 둡니다

青年合 犧牲者 羅錫疇 올림

崇德學舍經營難에逢着

빈곤에서 달려며배움의길을 찾는고학생들로는 무려五천여명에 달하는데 엄동을 맞이한 이들고학생들은 입을옷하나 번번한것없이기아와 싸우고있서 사회의 따듯한동정이있어야 할것인데 이들을일부학생이나마 안심하고공부할수있도록 숙소와학비를 대여주든 서울숭덕학사(崇德學舍)마저 경영난으로말미아마 해대의운영에 빠지게되였다한다 이학사는十五년전 일본동경에서창설되여 해방후고국으로돌아와 현하장이며창설자인 박영출(朴永出)목사의노력으로 경영되어오든중 경영난에빠지게되였다고한다

이에사생(舍生)四배어명은 동기방학을 이용하여 문허저가는 학사를구하고저 강연과 여흥으로로내밀초부터 남선각지를 순행하며 일반사회에 동정을구하기로되였다고한다

米穀收集不完了

廿六日現在로九二%突破

앞서 八七퍼센트 수집으로조흔성과를 보이고있는 미곡수집상황은 요한주일동안에 수집률이 부쩍올라 二十六일현재 九二퍼센트에달하였고 충북 강원 전남은배정이상을수집하였고 서울 충남 경남은 수집이완료 되였으며 남어지두 이대로가면 불원에완료될듯하다

嶺南日報에火災

지난廿四일밤 十시경부산 북정(北亭町)에있는 영남일보사(嶺南日報社)공장장에서발화하야 약一시간동안에 공장을전소하고 진화하였는데 손해는약二천만원이라하며 원인은 아직판명되지않었다고한다

在滿同胞萬名을護送

中國政府서三億圓豫算으로

기보한바와같이 재만전재동포의구제문제는 중앙청당국에서 선박을파송하야 二만명을귀환시키고 남은동포에게 二억원의구제금품을 보내기로되였는데 엄동설한에 날로굶주리여 조국의구원의 손길이 하로속히 미처주기를 기다리는동포들은 이를 세인의걱정하는데 차 못하여 중국정부에 호원 애소한 결과 중국정부당국에서 그들의 참상을보지못하야 자기정부에서 三억원의예산을확정 원조하기로되였다고한다 이에대하야 동북행원(東北行轅)교부에서 중앙정부와 미군고문단『데이』사령부에 연락되리라하는데 호송은제삼회로 나누어 매년二월하순경에 승선완료할예정이라고한다

驪州騷擾事件關係者에言渡

작년十월 여주(驪州)소요사건에 관계된 박창환(朴昶煥)외 三五명에대한 언도공판은 二十六일 대법정에서 옥선진(玉璿珍)검찰관입회 민동식(閔東植)심판관 주심으로 개정되어 박창환(朴昶煥)외 四명은 징역二년 김인호(金仁浩)외六명은 一년六개월 정철희(鄭喆熙)외 十一명은 징역一년 박용만(朴容萬)은 六개월 조동헌(趙東憲)은 무죄를선고받았다

平澤署事件關係者에言渡

기보한 지난七월의 소(?) 평택서(平澤署)사건 관계피고들은 二十六일四호법정에서 강석복(姜錫福) 검찰관입회 이천상(李天祥) 심판관주심으로 결심공판에서 포고二호법령十九호四조위반으로 다음과같은 언도를받었다

▽崔茂增(平澤署搜査主任)(懲役十個月)▽金炯宇(懲役六個月 追徵參一萬六千圓 執猶三年)▽余淑(懲役六個月 執猶三年)▽金炳日(懲役十個月)▽金角(懲役八個月)▽崔鋼外三名(罰金五千圓)△權吉植(懲役三個月 執猶三年)▽金世煥, 金長睦(無罪)

캔디事件擴大

城東署長問招

식량행정처 사탕사건에 관련하여 廿七일성동 경찰서장 유철(劉澈)씨를 경무부 수사국장 실에 불러 이만종(李萬鍾)씨가 직접 문초를 하였는데 사건내용인즉 동화기업 검정단으로부터 약二十만원의뇌물을받은것이 탄로된 모양으로 결국 [illegible]

金性洙氏殺害未遂犯에七年言渡

작년十월二十三일한민당 위원장김성수(金性洙)씨 살해미수범 김중익(金重益)(二八)외二명에대한 결심공판은 二十七일김병화(金炳華)검찰관입회 양원일(梁元一)심판관주심으로 개정되어 전기 김은七년 박우순(朴禹順)(二四)은 八년 허유경(許由경)(二七)은 五년의체형을 각각언도되였다

新刊紹介

▽法政 十二月號 서울市乙支路一街一二 法政社發行 定價五〇圓

▽白民 新年特輯號 서울市中區上洞九 白民社發行 定價八〇圓

▽朝鮮年鑑 一九四八年版 서울市鍾路二街北美大廈 朝鮮通信社發行 定價五百圓

▽無窮第九號(文藝特輯) 서울市中區南大門路朝鮮殖産銀行 行友會本部發行 非賣品

日氣豫報

北西風이 多少불고 午前에는 흐리겠으나 午後에는맑겠다

氣溫 最高 二度六分 最低 一度一分

特品清酒

百合

자자표 洋酒

라이온위스키

Whisky Lion

製造本舖 興邦産業公司

서울市西大門區巡和洞六五

販賣部 三省興業社 中區蓽洞一街五一 電本(2)5871

盧昌祿商店 서울市南大門市場 電本(2)7528

法律政治學通信講義 會員募集

本學會는 朝鮮最初의 大衆大學으로 누구든지 自己居處에서 大學敎育을 받게하고 있읍니다

一、學科目-法律學·政治學·經濟學·社會學·哲學等 三十八科目

一、本講義錄은 各大學權威敎授의 執筆로서 專門大學의 敎材, 參考書及 考試準備書로 各執筆先生이 責任推奬하고 계십니다

一、希望하실분은 速히 入會하십시요. 入會方法은 本會會員規則書及內容書에 있아오니 十圓郵票封入하여 請求하시기 바랍니다

서울市南大門路二街一一五 (信託銀行越便)

朝鮮通信法政學會

韓昌洋行

寫眞機와材料

서울鍾路三街三 電光③3326

天下一品

各百貨店·化粧品店·藥房에서 販賣합니다

技術者募集

自轉車熟練工 若干名

一、自轉車修理에 十年以上有經驗者

二、經歷에依하야厚待함

右希望者는 自筆履歷書一通을携帶하고 來十二月三十一日正午까지 左記場所로 本人來社할事

서울市南大門路二街一(東一빌딩三層)

東鮮自轉車工業株式會社 庶務部

訂正

十二月二十三日朝鮮通信에揭載된 本人의 聲明中『金性洙暗殺陰謀關係者는 朝鮮民族靑年團과의 無關係』云云한것은 朝鮮民族靑年團과는 無關係云云의 誤報임으로 玆에 訂正함

檀紀四二八〇年十二月二十六日

朝鮮民族靑年團 組織部長 盧泰俊